

2025년 6월호(제 246호)

소중한 사람들

그 한마디

좋아하는 꽃들이
아쉽게도
나를 두고 떠납니다.

다소곳한 푸른 잎사귀
당신처럼 꼭꼭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울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당신의 이름을
목메어 부릅니다.

사랑한다고
내 어깨를 토탁이시던 손길.
나의 시름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오직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 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 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고난을 택했던 어머니

어머니의 2심 재판 날 아침 일찍 종양지법으로 갔습니다. 지난 1심에서 마음적으로 많이 무너졌던 어머니가 심기 입장을 하면서 2심을 감당하셨지만, 결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눈앞이 깁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저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35편 19~25절 말씀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회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 암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암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멀찌고 깨어서 나를 공언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35:19~25).

기도하면서 계속 어머니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상대방들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러실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천식과 전정기판 이상으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뇌경색으로 언어 능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나이 들고 연약해진 종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끝까지 어려움 속에 두시는 건지…

저는 어머니가 차라리 노숙인 사역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의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가 많이 읽히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 집회로 초청받았었습니다. 그 수입으로 하나님께 목회만 하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노숙인 밥퍼 사역만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는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노숙인 밥퍼 사역하며 노숙인들이 어머니를 실제로 떠리 려고 하는 위협도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노숙인들이 차를이 필요하다며 자활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자게 해서는 그 영혼이 치유되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고 식사도 제공하였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작업장도 하셨는데, 어머니는 매일 일하는 훈련이 되어야 사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봉투 붙이는 작업장이었는데 한글도 몰라서 처음에는 봉투도 잘못 붙였던 사람들에게 본디 받아야 하는 일당 보다 더 많은 돈을 줘가며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거짓으로 고발한 자들이 어머니가 작업장에서 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의 돈을 뒤로 받아서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즐기에 악덕 대표에 돈을 갈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잡을 잘 못만 제공하면 될 텐데 왜 어머니는 저들이 자활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꾸셨을까요?

서울에서는 남성 노숙인보다 더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 노숙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출받은 것을 승계하려니 단체 명의로는 건물 구입이 어려워 어머니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은 대부분 정신 이상이나 마음이 깨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섬겼습니다. 아이티 사역으로 해외 출국이 필요했지만, 단 하루도 근무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과 중구청 직원들의 거짓 증언으로 어머니가 10여일 정도를 근무하지 않았다며 고발하여 사기 혐의 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사우나 한 번 가지 않으시는 분이 왜 아이티 고아들과 여성 노숙인까지 돌보려 했을까요?

노숙인 사역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나이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감옥 까지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만을 위한 삶의 결과일까요?

이런 고난 밖하고 저들을 빠져 부서지도록 사랑하셨나요?

어머니의 2심 선고 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푸른 정에 따라 설교하는 중에 우연히 시작한 강해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첫 본문에서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

매일 강해할 때마다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간 바울의 삶이 어머니의 현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를 이루며 살려는 사람, 옳을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인생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을 받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젖게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은 신앙이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풋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어머니의 삶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비록 아들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0년의 섬김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글 / 이성일 목사

함께 가는 길

빨래하기

갓 시집 온 나는 생활이 혼란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얼 식구의 맏며느리의 삶은 그리 농특치 않았다.
빨래 중 양말이 시름거리였다. 흰색 양말에 물어 있는 자국들을 지워야 했기 때문에 살고, 다른 색깔들은 빨고, 윤통 양말과의 전쟁이었다.
첫바지가 7개, 남방, 속옷...
세탁기가 없던 시절의 애환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무념처럼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웃을 빠는 순서를 정해 주었다.
가장 먼저는 시urd생, 시누이 것을 빨아라. 그 다음엔 노할머니와 시부모님 것을,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너의 남편 것을 빨면 된다고 하셨다.
그 순서대로 했더니 정말 빨래가 쉬운 것이다.
남편의 웃은 힘이 없을 때 해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빨 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생활의 지혜다.

보배함

나의 남편이 예수를 처음 믿은 날,
천국에 물려 올라갔었다는 것은 나와 먼저 믿은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옷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나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불교로 심취되어 있던 남편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다니 나도 천국을 봐야하겠다고 하나님께 빼를 썼다.
새벽기도 때마다 울면서 천국보기를 사모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때
내가 드디어 천국으로 유틸을 받았다. 멀리 무슨 빛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광의 빛이 오색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와! 천국에
왔구나! 하는데 천사들이나 무지개를 가지고 나를 막는다.
“너에게 천국을 다 보여 주었다.” 순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이 네 머리에 그려졌다.
내가 아멘! 하나님
그 두 천사는 “너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다.
어미니도 사위가 천국에 갔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 달라고 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세 사람이 보배함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 보배함 속에는 온갖 값비싼 반지들이 들어 있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그 천사들이 어머니에게 “너의 반지를 찾으러!” 하면서 보배함을 내주었다.
보배함에 금하지 하나가 불풀같이 있었는데 다 찌그리진 것었다.
엄마나 창피한지 몸 둘 바를 모르다가 “이 금반지가 제 것입니다.” 개미소리만한 말을
했더니 그 천사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금반지가 다 찌그리져 있구나.”
하면서 “이 보배함 중에서 가장 값비싼 반지가 바로 너의 것이다.”라면서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더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다 찌그리진 반지가 어머니 것이라면서 천국보기를 마다하시고 기뻐하고 늘 기뻐하셨다.

나 한 시간 후에 아버지 집으로 이사간다!

어머니의 입종이 가까웠다.
어머니는 나에게 귀를 어머니의 입에 가까이 대라고 손짓을 하셨다.
어머니는 “나 한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 이사 간다!”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나 내일 소풍간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이 웃기 즐거워하면서 말씀하신다.
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한 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로부터 하루를 더 사시고 그리워하시던 주님의 품에 안겼다.
나도 “나 한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집에 이사 간다.”라고 자랑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6

글/ 유정우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헬터(Shelter) 이용안내



누가 사용 할 수 있나?

1. 소중한 사람들 헬팅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신 분.
2. 소중한 사람을 헬팅센터를 이용했던 분 중에 자녀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구든 암환우이야 하고 병원 이용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3. 특별히 방사선 치료시에는 방사선 치료 진단사를 가져오시면 치료하는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헬터 이용안내

1.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병원에 갈 때에 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환우들마다 달라서 돌아오는 서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헬터가 시작되면서 돌아올 경우 서울역에서 돌아오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김대희 전도사님과 상의하면서 스케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단, 하루 이를 서울역에서 머물고 돌아올 수 있으니 먼저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은 기차로 이전처럼 돌아오시면 됩니다.
2. 퇴소했던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방사선 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쉴 곳이 없어서 다른 친인척의 집이나 아관을 전전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3. 3일 이상의 장기 거주는 불가합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만 치료 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소중한 사람을 헬팅센터에 입소하셨을 때에 등록하신 보호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머물 수 없음에 양해를 부탁합니다.
- 소중한 사람들을 헬팅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모두 제공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사람들을 헬팅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오전11시, 저녁 7시 예배가 드려지며 3층 챕터실에서 TV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 리트리트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리트 센터 이용 후기

리트리트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소*길 (4일간)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는 날 밤새 암다가 종교개혁주일 새벽 응급실에 갔는데 대장 친공으로 응급으로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폐전이가 되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장루를 달고 12회 표적 및 항암치료 후 23년 9월에 장루복원수술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 소개를 받고 4일간 머물면서 귀한 환우들과 사역과 직원을 대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습이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몰심양면으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보기 원합니다.

2. 윤*숙 (5일간)

지인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온 첫 느낌은 어느 호텔 못지않은 침대와 침구 등 너무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예배시간이 너무 좋았고 특히 음식은 왜 이런 맛있는지요. 소중한 사람들 힐링 센터에 있는 동안 암 환우들과 잣나무 푸른 숲도 가보고 앞에 있는 산에도 가면서 힐링 제대로 하고 갑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타에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 간강하게 퇴소시키기를 기원하며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힘내서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3. 오*경 (4일간)

하루 두 번씩 드리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소중한 사람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진정한 주님의 목자로서 양을 치는 심정으로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선포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디리가 불편한 저에게 매번 식사 때마다 밥과 반찬을 펴주시고 식탁에까지 날아가 주셨던 분들의 따스함, 봉사자분들이나 머물고 계신 환우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끈으로 하나 되어 묶여있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곳에서 경험했습니다.

4. 전*숙 (5일간)

맑은 물 경치 좋은 곳에서 예배와 기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며 매일았던 저의 영과 육체가 매일매일 살 아니고 회복되어서 갑니다. 암 환우분들이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서로를 중보하는 시간은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을 뚫고 가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에 저 또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내 옆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목요기도회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15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5월에는 3일 서부침례교회, 6일, 13일, 20일, 27일 이대부속초등교 학부모성경통독팀, 8일, 22일 이대부속유치원 10일 애플메시아, 13일 조이어스교회, 17일 램페울래, 19일 이학회37기, 20일 서방고온누리교회, 23일 강동온누리교회, 24일 모래내교회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봉사자들은 권경희, 김미정, 김성수, 김순희, 김명우, 김영숙, 김진숙, 김현숙, 박은순, 박진희, 송경숙, 송홍열, 심저연, 이소영, 이정훈, 이은영, 임윤업, 양지니, 천두희, 전영숙, 정성훈, 조진영, 조희진, 진경희, 최경희, 최금련, 정상훈, 최인선, 황복영, 황귀용, 황보례, 한에스더 님 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기정, 허철만, 한솔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임맹호, 박인애, 박문화, 장종숙, 강덕희, 김명우, 이주희, 윤화, 이왕희_개인봉사자들이 주임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역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수희, 김명우, 김원봉, 김정미, 송기승, 최영희)

소중한사람들 무료 식자재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법주, 화요일 김제정 수요일 정기종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유정옥 주일 이성일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 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속초 성경통독팀과 소중한찬양단
- * 에클레시아 특송
- * 소식지 우편을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신 이대부초성경통독팀
- * 어버이날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떡을 전달하신 이대유치원
- * 13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길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성교회 전도팀
- * 30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많은 팀과 개인봉사들
- 모두 감사합니다



후원물품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숙님 *티파 간식을 준비하신 이대유치원, 장성교회

- *마나나를 후원하신 에클레시아, 조이어스교회 *소중한사람들교회 예배를 위해 기타를 사주신 박도영, 조승희, 최승표님
- *파프리카를 후원하신 이소영님 *치킨을 요리해 오신 조이어스교회
- *된장을 보내주신 이춘원님 *단팥빵을 후원하신 진승연님 *돼지고기를 후원해 주신 (주)노아
- *소고기를 후원해 주신 하나프라임

빵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5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5/1	김명숙	커피	600스	5/4~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5/2	푸드뱅크	빵·부식	500스	5/4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5/6	이대부초성경통독팀	티	3박스	5/6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7	푸드뱅크	빵·부식	600스	5/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7	김승연	빵	400스	5/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8	이춘원	떡우유·화과금	500스	5/8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9	푸드뱅크	빵·부식	700스	5/9~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5/12	푸드뱅크	빵·부식	700스	5/1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13	조이어스교회	치킨·마나나	700스	5/13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14	푸드뱅크	빵·부식	500스	5/15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15	이소영	파프리카	1박스	5/16~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6	푸드뱅크	빵·부식	600스	5/18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5/9	푸드뱅크	빵·부식	400스	5/20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9	박도영·조승희·최승표	기타	1개	5/21~	장악도용	소중한사람들교회
5/11	푸드뱅크	빵·부식	300스	5/22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26	이춘원	원당	1박스	5/27~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23	푸드뱅크	빵·부식	500스	5/2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5/24	장성교회 푸드팀	티	400스	5/24	나눔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26	푸드뱅크	빵·부식	500스	5/27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29	(주)노아	돼지고기	600스	5/30~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30	하나프라임	우산·점퍼·소婢	900스	5/31~	급식	소중한사람들교회 노숙인
5/30	푸드뱅크	빵·부식	500스	6/3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상당 · 청원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8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8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
를 받는다. 의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의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
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증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을 기도로 돋이 위해 모이는 화요 증보기도 모임이 어느정도 1059회가 되었다.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의 종합적 기도 사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개인의 증보 기도를 합침하여 기도한다. 증보기도 모임은 소중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들기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증보기도 제목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긴장, 직장, 기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 사람들을 365일 하나님의 말씀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전도, 상담, 사역, 이방, 의류 생활을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살피는 소중한 사람들을 이루민 센터 사역을 위해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 사람들을 해외사역

- 과거 1후원은 양육과 무료 금식·미안판,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비행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원 3) 성금사역 4) 행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5. 치유 - 신현진 최유온 김정신 정은영 황우진 이태우 곽호경 배윤경 김종혁 장경희 강호현 원양분 유율원 한치웅 김경주 방미린 정소녀 최은영 김동숙 정숙숙 황숙길 조호호 오은손 남승현 한성숙 김소진 이태순 김경국 일송혜 주시고자 주시십시오

6. 박호경 이태희 이병희 이성철 이희열 이기열 박경숙 김현종 최운희 이병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청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장임 권은미 이진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운 인종복 김미희 윤지원 강미경 김병관 이순조 김자운 김형식 권우승 이운규 주자희 허미숙 최봉관 육준기 최경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선 구현주님의 암에서 원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신현진님이 9주까지 앓은 스플리자 주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차 이후 주사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의료보직 공단에서 주사를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스플리자 주사가 절실히 상태입니다. 신현진이 다시 스플리자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증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연두색 신록들이 점점 푸르러 갑니다.

퇴야벌이 내리쬐고 태풍도 불고...

하지만 까만 씨앗을 위하여 그 모친 고통을 이겨갈 것 입니다

목적 현금을 보내주신 미국 뉴저지의 조은래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를 보내주신 강원봉 김정미,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이성웅 이한나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LENOX WORLD MISS에 감사드립니다.
강덕희, 강인숙, 강지현, 고무원, 박효정, 김가남, 김갑희, 김미영, 김영림, 김현숙, 노아, 도문식, 문영숙, 박민희, 박수현, 박인혜, 박철규, 박혜수, 송기승, 성찬영, 신영순, 신현정, 신혜영, 유광현, 유정옥, 윤원석, 이고운, 이세민, 이울영, 이은주, 이주희, 이해심, 임나리, 정경희, 정영남, 최진욱, 한은숙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주신

(기금)안양감리교회, (예장) 경주제일교회, 영락교회, 웨이드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기관 감사 현금을 보내주신 온누리 약국 북지회와 아틀란타 성경통우림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현금을 보내주신 김명수, 신현우, 주영훈, 김용수 송연숙, 유진상 황귀용, 이성웅 이한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조경숙, 한종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현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현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침을 알고 가족을 잊고 앞날의 희망마저 잊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 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얀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현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전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차별하고 격차한 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 힘과 경도로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자유로워기를 기도합니다.

신현진님이 4월15일 방광의 결석 저기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명 소중한 사람들을 암환우 힐링센터에 인소해 있는 암환자 신현진 최유온 김정신 정은영 황우진 이태우 곽호경 배윤경 김종혁 원양분 유율원, 유영예, 한치웅, 방미린 정소녀 최은희, 김현숙, 이혜숙, 김연희, 이우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희,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장임 권은미, 이진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운 인종복 김미희 윤지원 강미경, 김병관 이순조 김자운 김형식 권우승 이운규, 주자희, 허미숙, 최봉관 육준기, 최경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균, 조규철, 이민규, 이병선, 구현주님의 암에서 원치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년을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온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본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 소중한 사람들교회 현금

(2025년 5월 01일 ~ 5월 31일까지)

● 십일조 현금 ●

Lenox World Miss(740,600)	강덕희(210,000)	강원봉, 김정미(400,000)	강인숙(2,000,000)	강지현(80,000)	고무원(200,000)
곽호경(100,000)	김기봉(200,000)	김기희(510,000)	김기영(220,000)	김경숙(100,000)	김경숙, 손미나(2,000,000)
김용수, 송연숙(350,000)	김현숙(300,000)	김기원(300,000)	노진아(1,000,000)	도문식(500,000)	문영숙(200,000)
박금룡(100,000)	백민희(50,000)	박수현(200,000)	박언해(250,000)	박철규(300,000)	박혜수(500,000)
성찬숙(550,000)	송기숙(150,000)	송명순(288,400)	신한정(350,000)	신행진(450,000)	신예경(250,000)
유광현(330,000)	유양재(350,000)	유정옥(200,000)	윤한석(200,000)	이고운(590,000)	이상봉, 이현수(520,000)
이세린(250,000)	이율필(120,000)	이은주(1,000,000)	이주희(250,000)	이태실(35,000)	이태실(300,000)
이황희(35,000)	임나리(600,000)	정경희(50,000)	조미영(100,000)	최진숙(200,000)	한은숙(400,000)

● 개인 감사현금 ●

강덕희(40,000)	강상희(50,000)	강원봉, 김정미(200,000)	곽혜린(50,000)	권정인(100,000)	급식후원(10,000)
김경식(10,000)	김남이(50,000)	김동민(10,000)	김경록(110,000)	김미선(50,000)	김미경(20,000)
김미정(30,000)	김성남(30,000)	김경선(50,000)	김경수, 송연숙(200,000)	김인수(40,000)	
김정화(10,000)	김종영(100,000)	김기세(40,000)	김기영(100,000)	김행성(10,000)	김현서(2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비정(100,000)	나윤숙(60,000)	노원준(30,000)	노진혁(60,000)
무영(50,000)	민향숙(100,000)	박대수(10,000)	박동준(10,000)	박문화(40,000)	박성준(100,000)
박세준(50,000)	박영길(100,000)	박언혜(40,000)	박경래(30,000)	박정환(10,000)	박종숙(10,000)
박자경(10,000)	박진숙(50,000)	박희경(10,000)	변경자(20,000)	상영호, 이경민(500,000)	성은홍, 경희관(100,000)
송계순(50,000)	송기숙(20,000)	신현정(100,000)	신모경(10,000)	안형진(100,000)	양복길(13,000)
오경님(20,000)	오선향(100,000)	오자식(100,000)	유재학(130,000)	유정목(10,000)	유진상, 황귀광(200,000)
윤화(30,000)	이기행(40,000)	이문숙(80,000)	이미밀(100,000)	이보꽃(50,000)	이선아(100,000)
이상봉, 이현수(800,000)	이상혁(5,000)	이연옥(10,000)	이정주(50,000)	이용선(50,000)	이원우(1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은남(30,000)	이재상(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60,000)
이지운(10,000)	이천우(10,000)	이준(100,000)	이준회(40,000)	이현경(50,000)	이황희(40,000)
임운길(140,000)	장광록, 장자연(50,000)	장란숙(100,000)	장미숙(20,000)	장지호(50,000)	전혜진(10,000)
장명수(20,000)	정일권(20,000)	정주연(50,000)	정태현(10,000)	정혜경(30,000)	조민희(10,000)
조성숙(50,000)	조율화(10,000)	조진숙(50,000)	조희진(10,000)	최상운(50,000)	최양근(50,000)
최정희(40,000)	최진복(20,000)	최진자(100,000)	하경숙(10,000)	한경숙(10,000)	한승연(100,000)
한애스터(10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100,000)			

● 교회 감사현금 ●

(기감) 봉법교회(100,000)	(기감) 신제증명교회(100,000)	(기감) 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감) 안양감리교회(200,000)	(기성) 식도성결교회(50,000)	
(기성) 아현성결교회(100,000)	(예장) 경주제일교회(200,000)	(예장) 문호교회(100,000)	(예장) 양의문교회(30,000)	(예장) 영락교회(300,000)	
(예장) 하나님로교회(100,000)	기쁜우리교회(100,000)	베아직교회(1,000,000)	비천성사찰례교회(30,000)	예봉교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장성교회(100,000)	주간양교회(50,000)	주간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 기관 감사현금 ●

(주) 칸피티크(300,000)	갓피플웨딩(50,000)	계영산(50,000)	길벗여행사(100,000)	로고스스티디카페(20,000)	마리나티(30,000)
예수그리스도(20,000)	온누리악국복지회(300,000)	이학여대부속유치원(100,000)	창세에스엔티(50,000)	토브디자인(100,000)	

● 미안마고아 선교현금 ●

(₩) GBP(50,000)	곽상미(40,000)	김정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재식(40,000)
박경근(40,000)	박지연(40,000)	백천성(40,000)	안서영(40,000)	안성준(송정숙)(40,000)	윤혜경(40,000)
이성준(40,000)	이성자(40,000)	이용숙(40,000)	이예란(40,000)	정명예(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최금현(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 중국고야 선교현금 ●

운혜경(40,000)	이해란(40,000)	조준식(40,000)
-------------	-------------	-------------

● 멕시코고야 선교현금 ●

김동민(40,000)	운혜경(40,000)	이해란(40,000)
-------------	-------------	-------------

● 북한고야 선교현금 ●

(₩) GBP(5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정(5,000)	석명란(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운혜경(40,000)	윤혜원(20,000)
이복자(200,000)	이수미(50,000)	이순주(20,000)	이예란(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함수경(40,000)	황주영(15,000)				

● 북한선교 현금 ●

(₩) 엔비에프(100,000)	남기국(10,000)	박혜경(30,000)	신경자(100,000)	이향자(50,000)	이해란(50,000)
장승화(50,000)	지선옥(20,000)				

● 베트남선교 현금 ●

강면구(40,000)	강면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	-------------	-------------	-------------

● 아이티 선교현금 ●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 온누리악국복지회박종화(40,000)	갓피플웨딩(40,000)	갓피플웨딩(40,000)	김인경(40,000)	고순이(40,000)
김경희(40,000)	김대준(손향)(40,000)	김상진(손향)(40,000)	김화련(50,000)	노윤경(40,000)
박선근(40,000)	박선주(80,000)	새사랑교회(40,000)	손향(40,000)	송현주(80,000)
운혜경(40,000)	이재혁(40,000)	이천의(40,000)	이예란(40,000)	장정화(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제신혜(30,000)	최춘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여국어대학교서당교사상장이해(50,000)	홍정희(40,000)	홍정희(40,000)		

● 아이티 선교현금 ●

김인수(40,000)	무령(300,000)	박영미(35,000)	박종례, 최(20,000)
성찬영(50,000)	신혜경(2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춘호(30,000)	한종식(200,000)



2025년 05월 CMS

(2025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강금내(50,000)	강연구(20,000)	강영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길희(20,000)	강전희(10,000)	강지수(10,000)	강진미(20,000)	강화란(10,000)	고건희(10,000)
고남준(10,000)	고명희(1,000)	고성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종해(5,000)	권미희(30,000)	권유미(10,000)	권태준(10,000)	권혁천(10,000)	(+GBP)100,000)	김경리(10,000)	
김경민(20,000)	김경민(10,000)	김경숙(30,000)	김경희(10,000)	김광천(10,000)	김규관(30,000)	김기정(3,000)	김나영(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만(50,000)	김동형(10,000)	김영수(130,000)	김영순(10,000)	김영욱(100,000)	김영희(10,000)
김문숙(10,000)	김미숙(10,000)	김민경(30,000)	김민자(20,000)	김번욱(10,000)	김베드로(10,000)	김병식(100,000)	
김보경(10,000)	김보연(5,000)	김복자(10,000)	김부네(30,000)	김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성현(20,000)	김소라(10,000)	김소령(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경(10,000)	김수경(20,000)	김수경(30,000)	김수현(30,000)	김숙미(10,000)	김순희(20,000)	김순하(10,000)
김승아(10,000)	김승준(30,000)	김승욱(10,000)	김승정(5,000)	김승숙(10,000)	김영수(10,000)	김영순(10,000)	
김영욱(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40,000)	김영진(10,000)	김오례(10,000)	김육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운전(10,000)	김운주(5,000)	김운주(10,000)	김운희(100,000)	김와현(1,000)	
김인자(50,000)	김인주(50,000)	김길행(20,000)	김재정(80,000)	김재경(2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님(30,000)	김주제(20,000)	김지윤(20,000)	김지현(30,000)	김간하(5,000)	김상영(10,000)	김천일(20,000)	김대조(20,000)
김태훈(5,000)	김태운(10,000)	김향순(5,000)	김현진(30,000)	김현희(10,000)	김혜민(5,000)	김혜민(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호정(20,000)	김호진(50,000)	김호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영미(20,000)	나주말(10,000)
나지용(5,000)	남혜경(20,000)	노관이(30,000)	노은실(10,000)	노한준(30,000)	노현자(20,000)	도문식(30,000)	라이명(5,000)
류명순(5,000)	류승현(10,000)	류문자(10,000)	류주현(10,000)	무영(50,000)	무영(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수희(10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록(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진(20,000)	박민근(10,000)	박백근(10,000)
박봉신(10,000)	박상신(10,000)	박서운(10,000)	박성경(3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룡(15,000)	박영미(4,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자연(50,000)	박장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현(10,000)	박지원(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재현(50,000)	박철민(2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우(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오섭(10,000)	변준심(10,000)	사손희(10,000)	서기준(10,000)	서상숙(20,000)	서부원(20,000)	식영란(10,000)	식진혁(30,000)
상기번(40,000)	상준호(30,000)	손미경(10,000)	손석원(20,000)	손시미(2,000)	손요미(10,000)	손잔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숙(50,000)	송경자(30,000)	송금화(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사진(30,000)
신승우(40,000)	신영우(10,000)	신봉순(10,000)	신은미(30,000)	신정봉(30,000)	신쓰숙(10,000)	신현우(200,000)	심성경(30,000)
심정설(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준숙(10,000)	안희석(10,000)	임마린(5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영준(5,000)	양현아(20,000)	여민귀(30,000)	엄명희(5,000)	오재현(10,000)
오진기(5,000)	용기숙(50,000)	율홍균(10,000)	원남준(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준(3,000)	유미선(3,000)
유민아(10,000)	유부자(10,000)	유선경(10,000)	유상숙(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례(10,000)	유정모(20,000)

유정렬(10,000)	유준서(5,000)	유현숙(10,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재자(50,000)	윤원(10,000)	윤풍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예준(10,000)	윤화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화(30,000)
이공이(100,000)	이금우(10,000)	이기래(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영숙(10,000)	이영준(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병훈(50,000)	이병우(10,000)	이브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록(20,000)	이삼총(50,000)
이선아(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예연(10,000)
이예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식(100,000)	이예원(10,000)	이익순(20,000)	이원경(10,000)	이원경(30,000)
이은수(10,000)	이은주(50,000)	이운해(50,000)	이의선(10,000)	이의희(10,000)	이인정(20,000)	이재희(100,000)	이재희(20,000)
이재행(10,000)	이재희(30,000)	이정민(10,000)	이정원(10,000)	이정운(10,000)	이제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수(1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주희(50,000)	이준록(10,000)	이자원(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100,000)	이진의(50,000)
이창호(50,000)	이창순(50,000)	이창주(20,000)	이현경(20,000)	이현경(10,000)	이해경(10,000)	이해경(10,000)	이해경(5,000)
이희경(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구(10,000)	임수섭(3,000)	임수연(10,000)	임신화(10,000)
임영이(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준호(20,000)	임혜순(30,000)	장문화(100,000)	장민용(10,000)	장선록(10,000)
장소영(10,000)	장순내(20,000)	장순희(5,000)	장승아(20,000)	장승미(2,000)	장영희(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장현우(100,000)	장현진(100,000)	장현정(50,000)	장재국(10,000)	장재봉(10,000)	장경복(50,000)
장덕구(10,000)	장두섭(10,000)	장미경(20,000)	장미선(50,000)	장미소(10,000)	장민경(10,000)	장성분(10,000)	장순남(10,000)
장예리(20,000)	장영호(30,000)	장유정(20,000)	장유진(30,000)	장윤경(10,000)	장윤호(10,000)	장은희(10,000)	장의경(10,000)
장인경(50,000)	장재경(5,000)	장재희(10,000)	장진숙(10,000)	장제자(10,000)	장혜진(10,000)	장현지(20,000)	조경찬(100,000)
조경희(10,000)	조경희(10,000)	조근경(10,000)	조근경(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성림(100,000)	조성원(10,000)
조수아(20,000)	조수경(10,000)	조운희(100,000)	조운희(100,000)	조은영(10,000)	조은영(10,000)	조준호(5,000)	조현미(10,000)
조혜경(10,000)	조영훈(300,000)	조지연(12,000)	자영자(50,000)	자재문(20,000)	진미제(2,000)	진순애(1,000)	자희승(40,000)
채승학(10,000)	채지경(30,000)	천인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기경(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10,000)	최경예(20,000)	최금련(30,000)	최민행(10,000)	최민종(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영실(5,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은주(10,000)	최은주(10,000)	최입부(10,000)	최재희(100,000)	최정순(5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100,000)	추운희(20,000)	추운희(20,000)	하경기(10,000)
한기수(10,000)	한동기(50,000)	한동운(30,000)	한지경(5,000)	한진현(10,000)	한재준(10,000)	한지훈(10,000)	한경순(50,000)
하미(10,000)	하상익(30,000)	하시원(30,000)	하인백(30,000)	한정원(100,000)	홍정경(3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물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20,000)	홍주연(20,000)	홍현미(1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증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현금을 보내시려면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NIM DONG BR SWIFT CODE : HVBKKR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전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 02-365-9104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목적지정 안함 <input type="checkbox"/>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input type="checkbox"/> 미안마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사업 <input type="checkbox"/> 아이티 <input type="checkbox"/> 후원구분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교회 <input type="checkbox"/> 멕시코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북한	<input type="checkbox"/> 암 환우 힐링센터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후원(CMS) <input type="checkbox"/> 직접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C M 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6일 <input type="checkbox"/> 16일 <input type="checkbox"/> 26일	통장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통장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아이티 DELMA 75, PORT-AU-PRINCE, HAITI TEL 509-3655-7153

멕시코 Lote 4 Man Zana 7 s/n nacionalistade Sanchez Tabada la Meza Ensenada, B.C cp22790 TEL 521-646-947-9250

미얀마 No724/D. No(41) B,E,P,S Lane, Lower Mingaladom Road, Sintngu @TR,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1-645858, 959-73086721

중국
북한